

주일가정예배

[대림절 넷째 주]

2021년 12월 19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1-3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대림절 네 번째 예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한 죽음, 영생을 위한 다시 오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더욱 붙잡아 주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 하시고,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25장 다같이

1.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2. 한밤중에 목자들 양 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3.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누가복음 1:26-38** **인도자**

-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설 교 『**마리아의 성탄절**』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05장** **다같이**

1.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2.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마리아의 성탄절

누가복음 1:26-38

성경의 첫 번째 성탄은 평범한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점을 갖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부의 삶이 그렇게 유복해 보이지도 여유 있는 삶도 아닌, 세칭 복 있어 보이는 그런 가정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던 부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순서대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지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백성을 하나님에게 인도할 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온통 맞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이 가족의 모든 이야기는 온통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개인적 관심사나 형편들은 모두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 말고 더 중요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당시 풍습으로 보아 지금 중고등 학생의 어린 나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그녀는 당시 일반적인 처녀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수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랬던 것 같이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그녀에게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누군가 인간의 상응하는 신앙을 이끌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함께할 정혼자 요셉의 삶과 자신의 삶을 함께 엮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은 당대 보통 사람들의 운명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여 미래가 매우 불안정한 약소 후진국의 시골 아낙네의 운명이라고 낙심하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천사의 고지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신의 삶이 은혜를 받은 것이라니!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이 과연 당시 평안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그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일 텐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고지의 부름부터 마리아는 놀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29절)에서 ‘생각한다’는 동사는 철저히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볼 때, 마리아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상황을 다시 확인시켜주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처녀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래적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고 거절하는 마리아에게 그는 오히려 성령의 부으심의 은총을 확신시킴과 동시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와 은총의 말씀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선포가 마리아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놀라운 순종이 일어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